

월출산과 영산강의 氣, 맑은 물에 고스란히

영암군 수도사업소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과 강진군 성전면의 경계에 위치한 해발 809m 월출산의 기(氣)를 받아서인지 영암군 수도사업소의 하루하루는 생기가 넘친다. 작은 군에 속하지만 군민을 위한 물 사랑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 크고 넓다.



푸른 산과 강으로부터 흐르는 영암의 氣

여름 초입에 이른 6월, 오락가락하는 날씨를 안고 방문한 영암군에서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구름을 머금어 신비롭기까지 한 월출산이었다.

“월출산 기로 만들어지는 찰지고 맛있는 쌀과 무화과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나주역에 내려 영암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물어본 영암의 특산물로는 단연 쌀과 무화과가 뽑혔다. 사실 영암의 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남에서 생산되는 쌀 가운데 1, 2위를 뚝뚝 차지할 정도로 그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푸른 영산강과 소백산계(小白山系)의 무등산 줄기가 이어지는 이곳 영암의 기는 비단 먹을거리에만 그치지 않고, 과거 백제시대 일본 땅에 문화의 씨를 뿌리고 고대 일본의 아스카문화를 꽃피우게 한 왕인 박사와 같은 위인을 낳기도 했다. 왕인 박사의 위업을 기리는 왕인문화제가 올해도 변함없이 열렸고, 1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다녀가기도 했다. 운영 관리, 상수도, 정수처리, 하수도, 하수처리 등 5개 파트로 나뉘어 군의 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영암군 수도사업소 역시 이러한 전통적인 기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철저한 업무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다. 영암군 수도사업소가 올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정수장 운영, 관리 실태 평가’에서 2006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이를 잘 말해주는 사례이다.

“2002년부터 읍, 면에서 관리하던 정수장을 수도사업소로 통합하면서 꾸준한 시설 투자를 통해 개선하는 한편, 다소 번거롭더라도 위탁보다 수도사업소 직영 관리를 통해 꼼꼼히 수질 관리를 시행해 온 것이 이번 수상을 이끈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도사업소를 이끌고 있는 최대호 소장의 수상 소감에서 군민을 향한 그의 철저한 서비스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ISO 24500에 빛나는 100% 완벽 행정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병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암군.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수도사업소 역시 비상사태를 겪으며 홍역을 치렀다. 하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대대적인 상수도 수질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비 48억9,900만 원을 지원받아 3개 면 7개 리 42개 마을 1,023가구에 대한 상수도 시설 공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수질 개선을 위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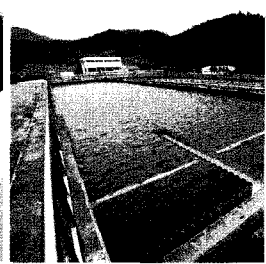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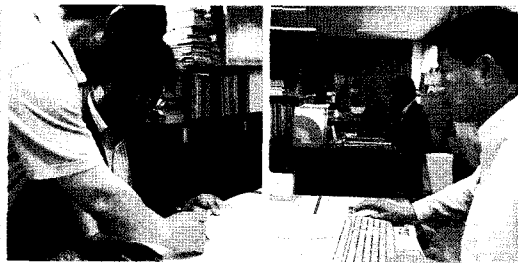
김일태 영암군수님께서 “오늘의 자연은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고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누구나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과 하수 분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원칙 준수와 서비스 정신이야말로 군민에게 신뢰감과 만족감을 주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암군 수도사업소 최대호 소장



영암군 수도사업소의 임직원들은 깨끗한 물 공급과 철저한 하수관리를 위해 모든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원지 주변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해 수질 정화용 생태 습지를 조성함으로써 오염 물질을 저감시키는 개선 활동도 진행했다.

“2008년 말 급수 보급률은 66.5%이며, 단계적으로 미급수 지역에 대한 보급률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에는 94.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원과 예산의 확보입니다.”

상수도를 담당하는 하진 계장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불편 없이 물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15% 선에 머물고 있는 군 재정 자립도를 높여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게 관건임을 강조했다.

영암군에서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수질을 향상시키고 처리 효율을 높이는 한편,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250억 원을 과감하게 투자해 영암읍과 삼호읍 소재지의 우수, 오수 관거 정비 및 배수 설비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설계 후 2010년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북면과 학산면의 면 단위 하수처리장 준공 사업이 영산강 수계의 수질 오염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를 담당하는 고승철 계장은 철저한 하수처리로 샛강이 살아나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마을 물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상하수도 분야를 막론하고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영암군 수도사업소의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바로 세계가 인정한 경영시스템 덕분이라며 최대호 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군은 2008년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 및 사업 시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경영시스템인 ISO 24500을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업무 절차를 확립하고, 고객인 군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암군이 2008년 12월 17일 노르웨이 국제 검증기관에서 획득한 검증서는 수도사업소로서는 국내 최초로, 상하수도 선진 경영시스템의 선두주자인 셈이다.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 영암군 삼호면 일대에 있는 총면적 1,114만㎡의 대불국가산업단지는 1989년 착공에 들어가 1996년 12월 완공된 국가산업단지다. 전라남도 서남권 최대의 산업단지로서 조성 당시 경공업단지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차츰 중공업단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곳의 상하수도 관련 시설과 관리 방법은 수도사업소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일이기도 하다.

“수년 동안 하수시설을 운영하면서 육안 식별이 어려워 수질 관리가 용이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T/F팀을 구성해 신공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을 직접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영암군 수도사업소의 업무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지난 2007년 영암군에서 독자 개발한 개방형 하수처리 특허 공법인 질산화여재를 이용한 하·폐수처리 공법은 저비용 고효능으로 업무 효율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총 9건 7억5,200만 원의 특허 판매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나아가 현재 몽골에 120억 규모의 사업 계약도 검토 중에 있다. 열정의 밑바탕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라고 생각하는 최대호 소장은 전 직원에게 전문 지식의 공유를 강조한다. 사업소의 업무는 특히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이다 보니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24시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민원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은 업무뿐 아니라 사업소에서 다루는 모든 기계들에 대한 직원 간 지식 공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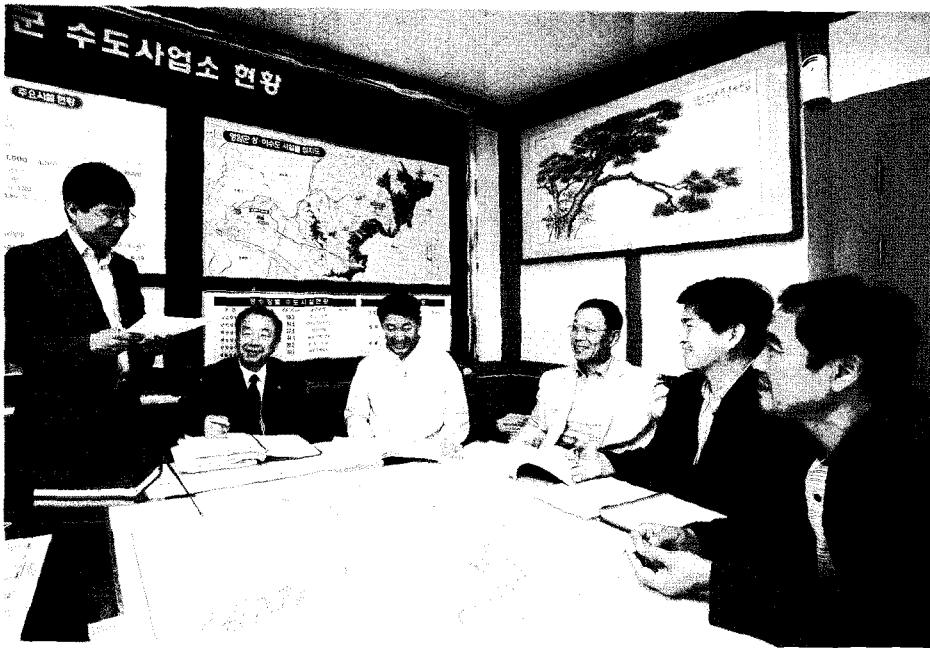
“업무지침 작성, 기계 조작에 대한 편람을 각 담당별로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전 직원들이 공유함으로써 현장의 공

동 대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모든 일에 직원들의 꼼꼼함과 열정이 가득 묻어나는 영암군 수도사업소. ‘정수장 운영, 관리 실태 평가’ 최우수 기관이라는 영예는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2006년 하수처리 시설운영 실태 평가 최우수, 2007년 마을 상수도운영 실태 평가 장려상 수상, 2006년과 2008년 정수처리 실태 평가 최우수 등 각종 정부 평가에서 거둔 우수한 성적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올해는 전년에 받은 ISO 24500의 검증을 바탕으로 일회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부 성과 지표와 담당별 목표 등 자체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의 피드백을 실시하여 업무의 개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인구 25,635세대 61,092명. 크지 않은 영암군이지만 군민을 위해 헌신하는 행정 서비스와 발로 뛰며 현장을 누비는 수도사업소 직원 한 명, 한 명의 열정은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꼼꼼하고 열정적인 영암군 수도사업소 임직원들에게 회의시간은 직원간 지식 공유가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다.

